



1박 2일 하계캠프 “나래캠프 주인공은 나야 나!”



뜨거운 해가 내리 쬌어 여름날, 나래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을 안고 가평으로 1박 2일 하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일정을 안내하고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이용자 자치회의를 통해 선정된 맛집인 막국수 집에 방문하여 맛 있게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기도 대표 수목원 중 하나인 아침고요수목원으로 이동하여 숲속의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예쁜 꽃들과 나무들을 구경했습니다. 더운 날씨로 걱정과는 달리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옆으로 그늘을 만나 동행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펜션으로 향하여 다 같이 물놀이 준비를 하고 준비운동을 하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튜브를 타면서 비치볼 게임도 하고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며 다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바비큐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저녁식사와 후식 등을 맛있게 먹으며 당일 일정에 대한 소감을 함께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용자들과 뜻 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캠프의 꽃인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여 다 같이 모여앉아 소규모 게임을 진행하고 서로의 소감과 내일 활동에 대한 일정에 대해 논의하며, 설레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일정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일정인 뽀띠프랑스로 이동하여 프랑스문화 및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도 찍고 ‘하하 호호’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통해 스스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자연을 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추억을 쌓은 우리 나래가족들은 무더위 여름을 시원한 웃음으로 날려버릴 충분한 휴식을 가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